

국토정책 Brief

국토연구원에서 수행한 주요 연구과제의 핵심 내용과 정책제안 등을 압축해 국민께 알려드리고자 하는 발간물입니다.

2025. 12. 22.
No. 1043



발행처 국토연구원
발행인 김명수
www.krihs.re.kr

김미정 선임연구위원
손재선 부연구위원
정예진 전문연구원

이 브리프는 나무를 베지
않고 만든 생분해성 펄프
용지를 사용하였습니다.

디지털전환 시대의 기반, 기본공간정보 항목 재선정 방안

주요 내용

- ❶ AI, IoT, 클라우드 기술의 확산으로 데이터 중심, 실시간, 초연결, 사용자 중심의 정보환경으로 변화함에 따라, 공간정보는 2D에서 정밀3D, 4D, 실시간 정보로 고도화되고 디지털 트윈, AI 서비스의 기반데이터로 역할 확대
- ❷ 이종 데이터의 융합, 표준화된 모델, 상호 운용성 요구가 급증하고 있으나, 가장 핵심이 되는 기본공간정보는 제도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 발생
 - 기본공간정보에 대한 정의 및 목적 불명확
 - 기본공간정보 항목 선정기준 부재로 인한 중복성 및 모호성
 - 기관별 자체 규정 중심의 구축으로 인한 품질, 연계성, 융복합 활용 미흡
 - 항목의 품질 및 통합관리, 플랫폼 분산 등으로 인한 접근성 저하
 - 3D 도시모형, 표준노드링크, AI 분석용 데이터 등 새로운 수요가 증가하나 이에 대한 대비 미흡
- ❸ 기본공간정보 항목 재선정을 위해 데이터 형태 및 전국 구축 여부, 개방성 및 활용도, 기본공간정보로서의 요건 등 세 가지 기준을 통해 항목의 제외·유지·추가 항목 도출

정책방안

- ❶ (항목 재선정) 해양지명, 해저지형, 입체모형, 도로명 주소는 제외, 도로, 건물, 정사영상, 행정구역 등은 유지하되 표준 및 데이터모델 강화, 표준노드링크 데이터세트, 정밀3D 공간정보 등 추가
- ❷ (생산기관 조정) 행정경계의 생산기관인 행정안전부를 실제 공간정보를 생산하는 국가데이터처로 변경하고, 표준노드링크 데이터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국토교통부로 변경
- ❸ (분류체계 정비) 기존 12개 대분류, 21개 중분류 체계를 8개 대분류, 12개 중분류, 21개 데이터세트로 재편하여 명확성·일관성 확보
- ❹ (제도개선) 기본공간정보 항목 재선정을 위한 기준 및 항목고시 관련 제도 개선 추진

01. 디지털 전환과 공간정보의 변화

디지털 전환 시대의 데이터 특성

(디지털 전환 시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등 첨단 기술을 통해 사회·경제적 구조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단순히 데이터를 디지털로 변환하는 것을 넘어 조직의 전략, 문화, 운영 방식까지 혁신

- 전 세계 주요국은 첨단 디지털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데이터 및 인공지능 내재화 등을 통해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 중임
- 우리나라도 정부 차원의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함¹⁾

(디지털 전환과 데이터) 디지털 전환 시대에 데이터는 데이터 중심성, 실시간성과 자동화, 초연결성과 융합, 사용자 중심 측면으로 변화 발생

- 데이터 중심성: 데이터 수집, 분석 및 활용을 통해 의사결정
- 실시간성과 자동화: IoT, 센서, 인공지능을 활용해 실시간 수집, 분석, 반응 등을 분석
- 초연결성과 융합: 다양한 시스템과 도메인을 연결하고, 이종 데이터의 융합 필요
- 사용자 중심: 맞춤형, 참여형 서비스로 시민과 산업의 수요를 직접 반영

디지털 전환에 따른 공간정보 변화 방향

(데이터 중심의 고도화 및 다양성 확보) 3차원 공간정보의 보편화 및 정밀화, 실시간 공간정보의 중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다양한 공간정보의 통합 및 분석

- 단순한 2D 지도가 아니라 LiDAR, 항공 및 위성 영상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현실세계를 정밀하게 반영하는 3D 공간정보의 구축 필요
- 변화하는 환경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동적인 실시간 공간정보의 수집 및 갱신 필요
- 정형 및 비정형 공간정보를 통합 및 분석, 인공지능 기술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인사이트 도출

(데이터 간 연결성 및 융복합 강화) 데이터 연동 및 이종 데이터 융합을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

- 다양한 기관에서 생산되는 공간정보가 서로 쉽게 연동되고 교환될 수 있도록 표준화된 데이터 모델과 인터페이스의 필요성 증대
- 공간정보가 다양한 비공간 데이터 및 비정형 데이터와 융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

(디지털 전환에 따라 공간정보 역할 변화) 디지털 전환 시대에는 공간정보의 역할과 요구 수준을 본질적으로 변화

- 과거의 공간정보는 위치 기반의 정적인 지도제작 혹은 행정용 기초자료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최근에는 디지털트윈, AI 시티 등의 구축을 위한 기반 데이터로서 중요성 확대
- 또한 3D, 4D 기반의 입체 및 시계열 정보, 센서, 드론, 위성 기반의 실시간 자동 갱신,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 융합 및 통합이 가능한 데이터 모델, 시민서비스 및 산업데이터 플랫폼의 기능 강화

1) 미국(반도체와 과학법, 인공지능, 제조업 정책 등), 독일(국가인공지능, 국가 산업정책, 데이터 전략, 매뉴팩처링 정책), EU(디지털 전략, 디지털 기술 강화, 디지털 규제 정책), 일본(커넥티드 인더스트리즈, 제6기 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디지털 청 출범, 인공지능 전략, 디지털 규제 개혁).

02. 기본공간정보 현황과 한계점

기본공간정보 현황

(기본공간정보 정의)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208호인 「기본공간정보 구축규정」에서 여러 공간정보를 통합·활용하기 위한 기본틀이 되는 정보로 정의

(기본공간정보 항목)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93호에 따라 5개 구축기관, 12개 대분류, 21개 중분류로 구성

- 국토지리정보원, 국립해양조사원,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통계청²⁾ 등 5개의 구축기관에서 구축
- 지형, 교통, 수문 등 12개의 대분류³⁾와 수치표고모형, 도로, 하천, 건물 등 21개 중분류⁴⁾로 구성

표 1 기본공간정보 항목

생산기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생산기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국토지리 정보원	지형	수치표고모형		국토지리 정보원	위치기준	측량기준점	
	교통	도로	도로경계선, 도로경계면, 도로노드, 도로링크, 인도		영상	정사영상	
		도로시설	점형도로시설, 선형도로시설, 면형도로시설		지명	육상지명	
		철도	철도경계면, 철도노드, 철도링크			해양지명	
	수문	철도시설	점형철도시설, 면형철도시설	국립해양 조사원	해양	해양경계	해안선
		하천	하천경계, 실효하천, 하천중심선			해저지형	수심
국토교통부	수문	수로시설	수로시설		지적	연속지적도	
		건물			시설	입체모형	
		건물중심점			경계	행정구역	법정경계 행정경계
	시설물	건물시설		행정안전부	주소	도로명주소	
통계청 (국가데이터처)	경계	통계구					

자료: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93호

(관련 규정 및 표준) 기본공간정보 전체에 대한 공통규정, 항목별 규정 등 구축 및 품질, 항목별 정의 및 구축 규정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정의

- 기본공간정보에 대한 구축규정, 제품사양 표준, 데이터 품질 표준 및 메타데이터 표준 등이 기본공간정보 공통규정으로 정해져 있음
- 항목별 규정은 수치표고모형 및 정사영상 관련 규정, 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자연·인공지명 관련 규정, 해양조사 및 수로측량 관련 규정, 「도로명주소법」, 통계지리정보 관리 지침 등 업무 중심의 개별 규정으로 정함
- 이 외에도 디지털 트윈국토 관련 건물, 교통, 수치표고모형 등의 데이터 모델을 국가표준으로 개발하여 관리

(기본공간정보 개방 현황) 기본공간정보는 항목별로 완전개방, 조건부개방, 미개방되고 있음

- 도로, 90m 해상도의 수치표고모형 등 19개의 항목을 브이월드, 개방해, 국토정보플랫폼 등을 통해 완전 개방하여 제공하고 있음
- 해안선의 경우 법정 구축기관인 국립해양조사원이 아닌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구축한 해안선을 개방하고 있으며, 행정경계의 경우 법정 구축기관인 행정안전부가 아닌 국가데이터처의 센서스용 행정구역을 제공하고 있음
- 수요가 높은 1m, 5m 해상도의 수치표고모형은 보안각서 등 별도의 사용절차에 따라 조건부로 개방하고 있으며, 해저지형과 입체모형은 현재 개방하고 있지 않음

2) 2025년 10월 1일자로 통계청에서 국가데이터처로 승격함.

3) 지형, 교통, 수문, 시설물, 위치기준, 영상, 지명, 해양, 지적, 시설, 경계, 주소.

4) 수치표고모형, 도로, 도로시설, 철도, 철도시설, 하천, 수로시설, 건물, 건물중심점, 건물시설, 측량기준점, 정사영상, 육상지명, 해양지명, 해양경계, 해저지형, 연속지적도, 입체모형, 행정구역, 도로명주소, 통계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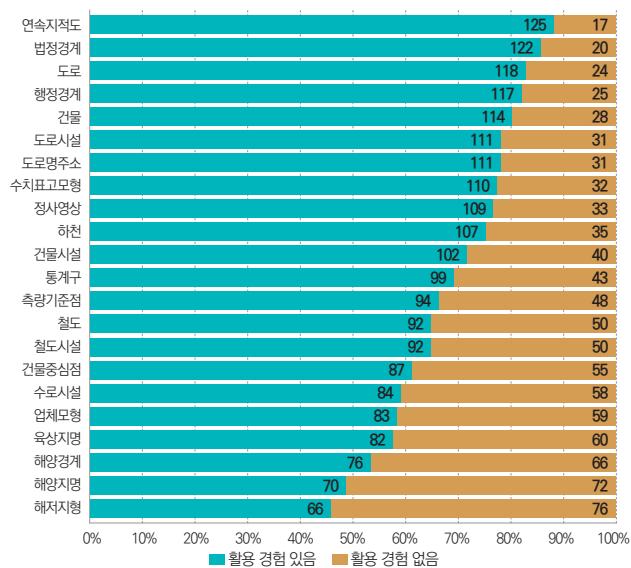
그림 1 기본공간정보 제공 플랫폼(브이월드, 국토정보플랫폼, 개방해)



(기본공간정보 활용 현황) 기본공간정보 사용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제공하고 있는 항목에 대하여 활용도가 높은 항목과 향후 추가적으로 필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음

- 기본공간정보의 활용도가 높은 항목은 연속지적도, 행정경계, 도로, 건물, 도로시설 순이며, 활용도가 낮은 항목은 해저지형, 해양지명, 육상지명, 입체모형, 수로시설 순임
- 사용 경험 기반으로 연속지적도, 도로, 건물, 정사영상 등에 대한 항목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됨
- 향후 수요가 높은 항목은 3D 도시모형 및 지하시설물, 3차원 정보(라이다, DEM, DSM 등), 도로 및 하천에 대한 네트워크 데이터, AI 분석을 위한 데이터 등으로 나타남

그림 2 기본공간정보 항목별 활용도



기본공간정보의 한계점

(기본공간정보의 목적 및 개념 불명확) 기본공간정보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기본공간정보의 정의와 목적, 역할 등에 대한 구체적 규정 부재

- 기본공간정보에 대한 정의는 국토교통부장관고시 '기본공간정보 구축규정'에만 존재하여 법적 위계가 낮고, 목적에서 정하고 있어 법적 위계에 적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효용성도 떨어짐
- 또한 기본공간정보의 목적, 역할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기본공간정보 항목의 선정, 구축, 관리, 유통 및 활용의 측면에서 혼란을 가중함

(항목 선정기준 부재 및 항목의 실체성 모호) 기본공간정보 항목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이 부재하여 객관성과 일관성이 부족하고, 데이터세트가 아닌 주제 단위로 항목을 지정하고 있어 항목의 실체성 모호

- 기본공간정보 항목 중에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생산하는 도로경계선의 경우 축척별 전자지도, 국가기본도, 정밀도로지도 각각에 도로경계선이 존재하므로 실제 기본공간정보 항목이 모호
- 또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생산하는 건물과 행정안전부에서 생산하는 도로명주소 중 건물을 중복적으로 제공하고 있어 혼란을 초래하고, 해양지명 등은 텍스트 기반 항목이므로 공간정보로서 적합성이 낮음

(기관별 구축 기준 상이) 기본공간정보 구축 규정은 선언적이고 측량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실제 구축은 생산기관별 규정에 따라 진행되어 품질·연계성·일관성 부족

(기술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미흡) 3D 도시모형, 네트워크 분석을 위한 표준노드링크 등 디지털 트윈, AI 분석에 필요한 핵심 데이터 부족

03. 기본공간정보 항목 재선정 방안

기본공간정보 항목 재선정을 위한 기준

(데이터 형태와 전국 구축 여부) 데이터의 형태가 공간정보 기반의 데이터인지와 전국적 구축 여부로 항목 검토

- 해양지명은 텍스트 기반의 데이터로 공간정보 기반의 데이터라고 볼 수 없으며, 입체모형, 해저지형은 일부 지역에만 구축되어 있음
- 도로명주소는 「도로명주소법」 제2조 제7호에서 도로명, 건물번호 및 상세주소로 표기하는 주소로 정의하고 있고, 도로명주소의 건물, 도로 데이터세트를 기본공간정보로 제공하고 있으나 이는 국토지리정보원의 건물, 도로 데이터세트와 중복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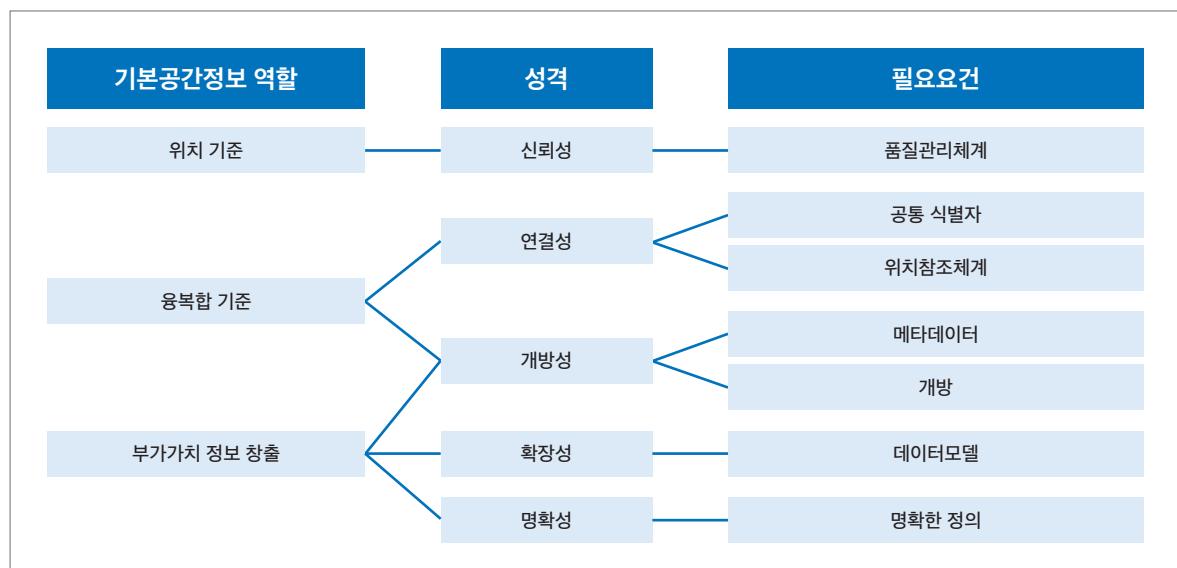
(개방성과 활용도) 기본공간정보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는지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은지 등에 대하여 항목 검토

- 국토지리정보원의 정사영상과 수치표고모형(해상도: 5m)은 활용성이 높은데도 조건부로 개방하고 있으며, 입체모형과 해저지형은 개방되어 있지 않음

(기본공간정보 요건) 기본공간정보의 역할인 다양한 공간정보를 생산·융복합·활용하는 데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필수요건을 갖추었는지 검토

- 위치기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품질관리체계를 갖추어 신뢰성을 확보하였는지 검토한 결과 수치표고모형(해상도: 90m), 행정구역 중 행정경계, 육상 및 해양지명, 통계구 등은 제도적인 품질관리체계가 미비하거나 미흡함
- 다양한 데이터의 융복합 기준으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통 식별자 및 위치참조체계 등에 대한 연결성을 검토한 결과 행정경계, 육상 및 해양지명, 해양경계, 해저지형, 통계구 등에 대한 공통 식별자 및 위치참조체계에 대한 정의가 미흡함
- 부가가치 정보 창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모델, 명확한 정의 및 메타데이터 여부를 검토한 결과 수로시설, 건물중심점, 건물시설, 해양지명, 해저지형 등의 메타데이터나 데이터모델이 없음

그림 3) 기본공간정보의 역할과 필요 요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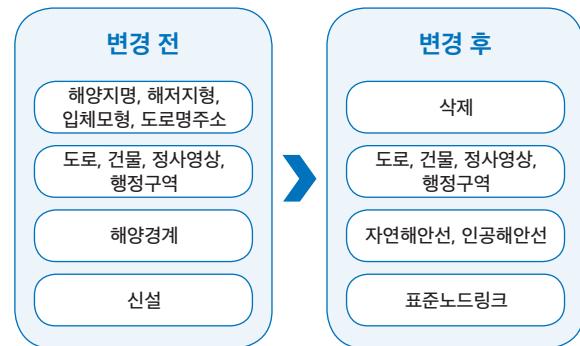


기본공간정보 항목 재선정 및 정비 방안

(항목 재선정) 기준에 따라 검토한 결과 제외해야 하는 항목, 유지하되 정비해야 하는 항목, 기술환경의 변화로 추가해야 하는 항목으로 나누어 재선정

- 해양지명은 텍스트 데이터이므로 제외하고, 해저지형 및 입체모형은 전국적으로 구축되지 않았으며, 도로명주소는 법적인 정의로 보았을 때 공간정보 기반으로 볼 수 없으며 현재 제공하고 있는 도로명주소 건물, 도로 데이터세트는 다른 항목과 중복 제공되고 있으므로 제외함
- 도로, 건물, 정사영상(이상 국토지리정보원), 행정구역(국토교통부)은 유지를 하되, 표준 및 데이터모델 등을 구축하여 확장성을 확보해야 함
- 해양경계(국립해양조사원)는 「수로측량 업무규정」 제34조 제1호에 따라 해안선은 해수면이 약최고고조면에 이르렀을 때 바다와 육지가 맞닿은 경계선이라는 정의에 따라 자연해안선과 인공해안선으로 구분하여 해양 데이터 플랫폼인 '개방해'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세트로 제공함
- 디지털트윈, AI 등의 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수요에 따라 표준노드링크 데이터세트(국토교통부)를 추가하여 제공하고, 장기적으로는 3차원 데이터를 구축·제공함

그림 4 기본공간정보 항목 변경(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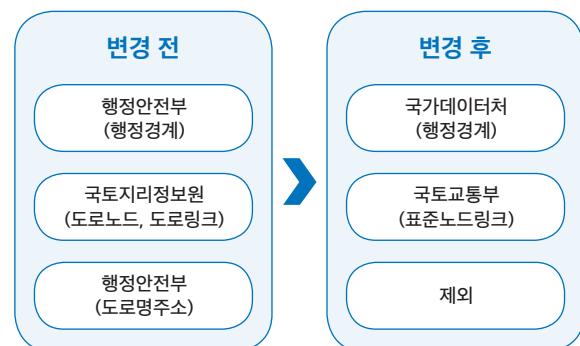


기본공간정보 항목 생산기관 조정

(생산기관의 변경) 효율적인 기본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를 위하여 실제 데이터를 생산하고 제공하고 있는 기관으로 생산기관 변경

- 행정경계의 생산기관은 행정안전부이나 실제로 행정경계를 공간정보로 구축하고 있지 않으므로 실제로 관련 데이터를 구축 및 제공하는 국가데이터처로 변경
- 도로노드와 도로링크를 생산하는 국토지리정보원을 실제 수요가 높은 표준노드링크로 데이터세트를 변경하고 생산기관을 국토교통부로 변경

그림 5 기본공간정보 구축기관 변경(안)



기본공간정보 항목 분류체계 정비

(분류체계의 정비) 현재 고시되어 있는 기본공간정보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체계가 주제와 데이터세트가 혼재되어 있으므로 주제 중심의 대분류 및 중분류와 실제 구축가능한 데이터세트로 재분류(<표 2> 참조)

- 현재 12개 대분류, 21개 중분류 및 소분류 체계를 8개 대분류, 12개 중분류, 21개의 데이터세트로 재분류

표 2 기본공간정보 선정 고시 개정(안)

현행				개정(안)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구축기관	대분류	중분류	데이터세트	구축기관	원천데이터	
경계	행정구역	법정경계 행정경계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계	행정 경계	법정경계 행정경계	국토교통부	수치지도 센서스용 행정구역	
	통계구		통계청		통계구	전수집계구			통계구역의 집계구
	도로	도로경계선, 도로경계면, 도로노드, 도로링크, 인도	국토지리 정보원		도로	도로경계선 도로경계면 도로중심선	국토지리 정보원	수치지도	
교통	도로시설	점형도로시설, 선형도로시설, 면형도로시설		도로	표준노드링크	국토교통부	표준 노드링크		
	철도	철도경계면, 철도노드, 철도링크		철도	철도경계면 철도중심선	국토지리 정보원	수치지도		
	철도시설	점형철도시설, 면형철도시설		교통 시설물	터널 교량				
해양	해양경계	해안선	하천	하천경계 하천중심선					
	해저지형	수심	수계	호수저수지					
수문	하천	하천경계, 실폭하천, 하천중심선	해안 경계	자연해안선 인공해안선	국립해양 조사원	해안선조사 측량원도			
	수로시설	수로시설	지적	연속지적	국토교통부	연속지적도			
지적	연속지적도	국토지리 정보원	지형	육상지형	수치표고모형	수치표고모형			
주소	도로명주소		위치 기준	축량 기준점	국가기준점	국토지리 정보원	축량기준점		
지형	수치표고모형		건물	건물	건물	국토지리 정보원	수치지도		
	육상지명			영상	영상	국토지리 정보원	정사영상		
지명	해양지명								
	위치기준		축량기준점						
	시설물	건물 건물중심점 건물시설							
영상	정사영상								
시설	입체모형								

기본공간정보 항목 관련 제도개선 방안

(기본공간정보 정의 및 선정기준 신설) 현재 국토교통부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공간정보 정의를 개념과 목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규정하고, 시행령에 항목의 선정 기준 신설

(기본공간정보 항목 재선정) 기본공간정보의 역할 및 항목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기본공간정보 선정 고시(안) 개정

표 3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안)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신설>	제2조(정의) 1의2. “기본공간정보”란 공간정보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활용하기 위하여 다른 공간정보를 생산·통합·활용하는 데 기준이 되는 기초적인 공간정보로 제19조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보 고시하는 정보를 말한다.	제15조(기본공간정보의 취득 및 관리) ① 법 제19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공간정보”란 다음 각 호의 공간정보를 말한다. 1. 기준점 2. 지명 3. 정사영상 4. 수치표고모형 5. 공간정보입체모형 6. 실내공간정보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공간정보	제15조(기본공간정보의 취득 및 관리) ① 법 제19조 제1항의 기본공간정보 선정 시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공간정보 생산·통합·활용에 기준이 되는 신뢰성을 확보한 정보 2. 누구나 활용가능하도록 개방되어 있는 정보 3. 다양한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정보 4. 지속적으로 확장가능하도록 표준에 기반하는 정보 5. 그 밖에 공공·민간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디지털 전환 시대에 기본공간정보 관련 정책 제언

기본공간정보의 구축, 관리 및 활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위에서 제시한 기본공간정보 항목 변경 관련 제도정비 외에도 다양한 연구와 정책 필요

(표준 개발) 기본공간정보와 관련 데이터모델을 포함한 표준의 개발 필요

- 현재 기관표준으로 기본공간정보 제품사양, 데이터품질, 메타데이터 표준이 개발되어 있고 기관별로 구축 관련 지침이 있으나 2차원의 지도 혹은 정적 데이터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음
- 따라서 3차원 중심의 디지털 트윈국토의 기반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제표준인 CityGML 기반으로 개발된 디지털 트윈국토 표준을 기반으로 기본공간정보 데이터모델의 표준을 개발해야 함
- 이때 기본공간정보의 데이터세트에 따라 데이터의 구성, 속성 및 코드리스트 등을 포함한 모델이 개발되어야 함
- 현재 개발되어 있는 기본공간정보 제품사양, 데이터품질, 메타데이터 표준 등을 새로 개발된 기본공간정보 데이터 모델에 따라 수정·보완되어야 함

(통합관리체계 구축) 기관별로 생산한 기본공간정보 데이터세트를 관리하기 위한 통합관리체계 마련

- 각 기관에서 생산한 기본공간정보 데이터세트를 데이터모델 표준에 따라 변환, 품질확보 및 메타데이터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관리체계가 필요하며 이를 가능하게 하는 조직, 활동, 예산근거 등의 마련이 필수적임

(기본공간정보 제공 채널) 공간정보 오픈플랫폼(브이월드)에 사용자들이 믿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품질이 확보된 기본공간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별도의 채널 혹은 방안 필요

(거버넌스 구축) 기본공간정보 항목의 조정, 통합관리, 기본공간정보 표준 등의 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한 기관 및 전문가 협력체계로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5조 제6항에 따른 기본공간정보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필요

(로드맵 수립) 기본공간정보의 역할과 관리 및 운영환경 개선을 위한 로드맵 수립 및 추진과제 도출

참고문헌 김미정, 김결, 김민철, 오지영, 최정내 외. 2015. 최신성·활용성 제고를 위한 기본공간정보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세종: 국토교통부.
김종기, 심우중, 유슬기, 정은미, 이재윤, 경희권, 정지은, 김경유. 2024. 산업의 디지털 전환 현황과 혁신 활성화를 위한 연구. 세종: 산업연구원.
이지영, 김은형, 윤종성, 정명훈, 김민호, 박인혜, 최미애 외. 2020. 기본공간정보 표준화 및 발전방안 수립 연구. 수원: 국토지리정보원.

- 김미정 국토연구원 국토인프라·공간정보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mj.kim@krihs.re.kr, 044-960-0577)
- 손재선 국토연구원 국토인프라·공간정보연구본부 부연구위원(jsson@krihs.re.kr, 044-960-0418)
- 정예진 국토연구원 국토인프라·공간정보연구본부 전문연구원(yaejin@krihs.re.kr, 044-960-0645)

※ 이 브리프는 “김미정, 손재선, 정예진. 2025. “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응하는 기본공간정보 항목 재선정 방안 연구. 세종: 국토연구원” 보고서를 요약·정리한 것임.
※ 이 브리프는 연구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정부나 국토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 있음.